

中南美 動向

UN 中南美經濟委員會(ECLAC)에 따르면 97년에도
對중남미 外國人直接投資 급증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멕시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 PRI가 패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멕시코 정치과정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美 행정부가 NAFTA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바
美國은 물론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멕시코가 美洲國들과의 자유무역 확대를 위하여
파나마 및 MERCOSUR와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日本은 對中南美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페루를 중남미국가중에서는 처음으로 開發戰略支援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對中南美 外國人直接投資 급증세 지속

UN 中南美經濟委員會(ECLAC)에 따르면
지난 90년 80억 달러에 불과하던 對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는 95년에 240억 달러, 96년
에 30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97년에는
37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97년에 전년대비 52% 증가한
15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기록할 전망이
며, 97년 1~5월에만도 63억 달러를 달성하
였다. 멕시코는 97년 1~4월간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10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
며 97년말에는 약 9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이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1997~2000년 기간
중 외국인투자 계획이 123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밝은 전망은 중남미 각국이 본격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南美南
部共同市場(MERCOSUR) 및 안데스共同市
場(ANCOM) 등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 활
성화에 따른 시장확대, 그리고 이와 병행하
여 추진하고 있는 각국의 시장개방화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 90
년대초 일부국가 집중 패턴에서 95년 이후
중남미 전역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
으며, 괄목할 만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광업 및 석유, 그리고 자
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다. 특히 MER-
COSUR 및 ANCOM 등 경제통합 심화에 따
른 시장확대는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 유망성
을 증가시키고 있다.

광업부문 외국인투자는 칠레 및 페루에서, 석유산업부문 외국인투자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베네수엘라에서,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부문 외국인투자는 멕시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ngineering & Mining』誌의 조사에 따르면, 1996~2000년 기간중 對중남미 광업부문 투자가 전세계 광업부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117억 9,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1995~2000년 기간중 브라질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4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000년까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자동차산업에 각각 52억 달러, 39억 달러의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96년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FDI는 전년대비 58% 증가한 2억 4,300만 달러(37건)를 기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 활성화에 따른 시장확대 및 역외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관세적용 등을 고려할 경우, 對중남미 FDI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總選 결과, 집권당 패배

7월 6일 실시된 연방하원 전원, 연방상원 1/4, 멕시코市 시장 및 시의회, 6개州 주지사를 선출하는 멕시코 총선 개표결과 여당이 패배한 것으로 나타나 1929년 이후 68년간 지속되어온 제도혁명당(PRI) 1당지배가 무너지고, 하원에서 최초의 여소야대 구도가 갖춰지는 등 권력구조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선거구를 통해 직접선출하는 하원(300

석)에서는 PRI가 164석, 민주혁명당(PRD)이 70석, 국민행동당(PAN)이 65석, 노동당(PT)이 1석을 차지하고, 비례대표 200석을 결정할 정당 득표율은 PRI가 38.86%(77석), PAN이 26.99%(56석), PRD가 25.59%(53석), 멕시코녹색당(PVEM)이 3.86%(9석), PT가 2.56%를 차지했다.

총 128석 가운데 32석이 교체되는 상원선거에서는 PRI가 38.24%(13석), PRD가 25.70%(9석), PAN이 27.32%(9석), PVEM이 4.08%(1석)를 각각 획득했다.

인구 1,8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통치하고, 대통령 다음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멕시코시 시장선거에서는 47.11%를 획득한 PRD의 까르테나스(Cuauhtemoc Cardenas) 후보가 25.08%를 획득한 PRI의 마소(Alfredo del Mazo)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에 확정되었고, 시의회도 52.04%를 획득한 PRD가 27.16% 획득에 그친 PRI를 압도했다.

6개州 주지사 선거에서 PRI는 Campeche州(47.7%), Colima州(40.85%) San Luis Potosi州(45.2%), Sonora州(41%)에서, PAN은 중·북부산업지역인 Nuevo Leon州(48.9%)와 Queretaro州(44.8%)에서 승리했다.

멕시코 정치구조에서 혁명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PRI의 참패와 여소야대 구도는 PRI체제하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빈곤심화, 사회불안 및 경제위기에 의한 民心 離反, 세디요 대통령이 주도해온 정치개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혁), 그리고 복지강화 및 정부지출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PRD의 政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최근 멕시코 정치권은 살리나스(Carlos Salinas) 前대통령 동생 라울 살리나스(Raul Salinas)의 부정부패와 정치적 암살 관련혐의,

〈표 1〉 멕시코 총선결과 의석 분포 비교

	1994년 8월 선거결과		1997년 7월 선거결과(잠정)	
	하 원	상 원	하 원	상 원
제도혁명당(PRI)	300	95	239	77
국민행동당(PAN)	119	25	124	32
민주혁명당(PRD)	71	8	122	16
노동당(PT)	10	-	6	-
멕시코녹색당(PVEM)	-	-	9	1
무소속	-	-	-	2
합 계	500	128	500	128

고위 공직자들의 연이은 마약밀매 관련 부패 혐의 등으로 얼룩져 있다.

또한 94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경제악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와중에 사라져가던 무장게릴라 활동이 재개되었다. 최근 사빠띠스따 이외에 인민혁명군(EPR)이라는 새로운 무장세력이 출현해 게레로州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디요 대통령은 정치개혁 일환으로 96년 7월 야당과 이번 선거부터 적용될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바, 여당이 독식해온 선거자금을 야당에게도 공평배분하고, 대통령 임명직인 멕시코市 시장직을 직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전환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유럽 각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복지강화 및 정부지출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PRD의 政綱이 까르테나스 후보의 지지도 상승과 함께 빈민층, 지식층, 민주화지지 개혁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PRI는 멕시코노총(CTM) 벨라스게스(Fidel Velasquez)위원장과 Televisa Group의 社主 아스까라가(Emilio Ascaraga)의 최근 사망으로 최대지원 세력인 노동조직과 언론으

로부터 이전과 같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혁명적인 선거결과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평화로운 선거운동과 투개표 과정, 그리고 멕시코 국민들의 진정한 민주주의 열망의 표출에 있다.

이번 선거결과 여야는 다당체제에 적응하여 상호 이질적인 정책을 조화시켜야 함은 물론, 행정부와 의회간, 그리고 연방정부와 멕시코市 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야당이 약진한 선거결과가 멕시코 경제와 경제정책에 미칠 충격은 예상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었다. 선거 직후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금리는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폐소貨도 안정속에 달러貨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美 행정부, 『NAFTA 3개년 평가보고서』 의회 제출

美 행정부는 7월 11일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 제512조에 따라 국내외 보고서 및

데이터를 검토하여 NAFTA 운영 및 효과에 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同 보고서에는 NAFTA 출범 이후 북미 3국간의 교역추이, NAFTA에 따른 무역장벽의 완화, 북미 3국 경제 및 주요 업종에 미친 영향, 그리고 노동 및 환경보호 효과, 멕시코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이 면밀히 분석되고 있다.

회원국간 무역규모는 협정발효 이후 다른 역외국과의 교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96년말 현재 미국 교역량의 1/3인 4,210억달러가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협정발효 이후 회원국간 교역 증가율은 역외국들과의 교역증가율 33%를 상회하는 44%(멕시코 61%, 캐나다 37%)를 기록했다. 96년 미국과 캐나다간의 교역규모는 2,900억달러로 對캐나다 수출이 93년 대비 34% 증가한 1,340억달러, 수입이 1,560억달러를 기록하고, 96년 미국과 멕시코간의 교역규모는 1,310억달러로 對멕시코 수출이 93년 대비 37% 증가한 570억달러, 수입이 740억달러를 기록했다.

NAFTA하에서 관세인하 등 무역장벽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멕시코의 경우 각종 보호주의적 규제가 철폐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멕시코의 對美 관세율은 협정출범 이전 평균 10%에서 7.1%포인트 인하된 2.9%가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對멕시코 관세율은 2.07%에서 0.65%로 인하되었다.

NAFTA의 출범은 대체로 미국의 순수출, 소득, 투자, 고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 바, DR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NAFTA로 인하여 96년 미국의 對멕시코 실질수출이 120억달러 증가한 반면, 수입은 50억달러 증가에 그쳤다. 즉 양국간 교역에 미친 효과는 170억달러에 이르며, 미국의 순수

출이 70억달러나 증가했다. 또한 멕시코 금융위기를 고려한 DRI의 추계에 따르면 NAFTA는 미국에 있어 96년 130억달러의 실질소득 증가와 50억달러의 투자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96년 미국의 對캐나다 및 멕시코 수출은 230만명의 고용유지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NAFTA로 인한 미국의 對멕시코 수출증가가 창출한 고용효과는 9만~16만명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美 상무부는 수출부문이 전국평균보다 13~16%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산했다.

NAFTA 출범 직후 발생한 95년 멕시코의 경제위기와 NAFTA의 연관성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82년 멕시코의 경제위기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멕시코가 NAFTA에 속함으로 인하여 멕시코의 구조조정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 82년 멕시코 외채위기 당시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하는 데 무려 7년이 소요되었으나, 95년 패소위기 때에는 국제금융시장 복귀에 단지 7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82년 멕시코는 관세율 100% 인상 및 수량제한조치의 실시로 미국의 對멕시코 수출이 50% 감소하였고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7년이 소요되었으나, 95년에는 수출이 단지 7% 감소하는 데 그쳤고 18개월만에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96년 미국 상품의 멕시코 수입시장 점유율이 69.3%에서 75.5%로, 멕시코 상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6.9%에서 9.3%로 높아졌다. 주요 업종별로 시장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의 對멕시코 섬유부문 시장점유율은 멕시코에 의한 10.7%포인트 관세인하로 17.2%포인트 증가한 86.4%를, 수송장비 부문은 10.2%포인트 관세인하로 19.2%포인트 증가한 83.1%를, 전자제품 부문은 9%포인트 관

세인하로 5.7% 증가한 74.3%를 기록했다. 또한 여러 업종에 있어 미국의 對멕시코 수입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한 바, 예를 들면 멕시코로부터의 의류수입이 93년 4.4%에서 96년 9.6%로 증가하면서 中國·香港·韓國·臺灣으로부터의 의류수입은 93년 39%에서 96년 30%로 감소했다.

NAFTA 회원국들은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을 통해 기본적 노동문제(직업안정, 보건, 고용, 교육, 아동노동, 성차별 등)에 대한 협력과 노동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통해 광범위한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간 협력을 촉진시키고 멕시코 환경법 강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과 멕시코는 「5개년 국경 XXI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16개에 달하는 환경개선 인프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CEC는 위험폐기물 및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물 불법거래, 특정 유독화학물질 및 살충제 제거 등 광범위한 환경문제를 둘러싼 3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년에 불과한 짧은 시행기간과 멕시코 경제위기, 美 경제의 활황세, UR 및 WTO 체제하의 美 관세인하 등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NAFTA 자체만의 효과와 성과를 추출하기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美 행정부는 同 보고서가 미국경제에 대한 NAFTA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美경제정책연구원(EPI) 등은 同 보고서가 실질임금 감소, 환경문제 및 미국기업의 멕시코 移轉에 따른 미국내 일자리 감소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설명기준 또한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NAFTA 반대론자 및 개정론자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면, EPI는 고용창출 효과를 수출증가에 기준하기보다 무역수지에 기준함으로써 오히려 43만명이 실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NAFTA가 미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同 보고서가 향후 행정부의 신속처리협상권한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96년 11월 18일 캐나다와 칠레간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칠레의 NAFTA 가입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공화당 중심의 美 의회는 노동권 및 환경보호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지역무역협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칠레의 NAFTA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부와 맞서고 있다.

멕시코, 美洲國들과의 자유무역 확대 추진

적극적인 지역경제통합을 경제활성화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근간으로 삼아온 멕시코는 최근 파나마 및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과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세디요 대통령은 7월 29일 멕시코를 공식방문중인 바야다레스(Ernesto Perez Balladares) 파나마 대통령과 98년 4월까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완료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멕시코는 7월 30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미주 자유무역협정(FTAA) 창설 준비모임에서 MERCOSUR와의 조속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했다. 구체적 절차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칠레 및 볼리비아의 MERCOSUR 준회원국 가입방식을 따를 전망이다.

〈표 2〉 멕시코의 지역통합 추진 현황

경제통합협정	체결국	내용
멕시코-칠레 FTA	칠레	91.9. 체결(92.1.발효)
NAFTA	미국, 캐나다	94.1. 1. 발효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코스타리카	94.4. 체결(95.1.1.발효)
멕시코-볼리비아 FTA	볼리비아	94.9. 체결(95.1.1.발효)
G-3 FTA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96.6. 체결(95.1.발효)
멕시코-니카라과 FTA	니카라과	추진중
멕시코-브라질 FTA	브라질	추진중
멕시코-북중미 3국 FTA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추진중
멕시코-페루 FTA	페루	추진중
멕시코-파나마 FTA	파나마	98.4. 완료예정
멕시코-MERCOSUR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추진중
FTAA	미주 34개국	2005년 완료예정

멕시코는 개방경제 지속을 통한 지역경제 간 협력과 규모의 경제 달성을 목적으로 지난 80년 중남미통합연합(LAIA) 협정 발효이후 미주지역에서 쌍무간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추진해 왔다. 멕시코의 지역통합 추진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또한 멕시코는 域外그룹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EU와는 지난 91년 체결된 제한적인 멕시코-EU협력협정을 대체할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前단계인 잠정협정을 6월 11일 체결하여 98년부터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최근들어 멕시코가 중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2005년으로 예정된 FTAA를 대비하는 목적과 NAFTA의 효과, 즉 현재 멕시코 경제가 누리고 있는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 개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94년말 발생한 심각한 경제위기로 95년 -6%의 GDP증가율, 52%의 물

가상승률, 20%의 실질임금 감소, 약 50%의 폐소貨 질하 등을 경험한 멕시코 경제는 96년 5%의 GDP 증가율, 27.7%의 물가상승률, 환율안정, 실업률 감소 등을 시험하여 단기적인 경제회복 및 안정화를 달성했다. 또한 멕시코는 82년 외채위기 당시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하는 데 무려 7년이 소요되었으나, 95년 폐소위기때에는 NAFTA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 복귀에 단지 7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번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순조롭게 체결될 경우 현재 지연되고 있는 중미국가들과의 협정체결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는 MERCOSUR 회원국들과 개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농산물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던 칠레와 달리 현재까지는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장애요소가 없으며 MERCOSUR 회원국들이 협정체결을 환영하고 있어 협상과정은 순조로울 전망이다.

日本, 페루를 開發戰略支援 대상국으로 선정

일본은 최근 對開途國 開發戰略構想(Development Strategy Initiative)을 마련,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바, 개발전략지원 대상국으로 페루를 선정하였다. 對開途國 開發戰略構想이란 96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제안한 것으로 對開途國 지원을 기존의 단순한 자금공여 차원에서 탈피, 지원프로그램 실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여국과 수혜국이 빈곤퇴치 및 기타 목표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페루 이외도 캄보디아, 짐바브웨, 가나, 에디오피아, 탄자니아등을 개발전략지원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이와 같이 페루가 일본의 개발전략지원대상국으로 선정된 이유는 양국간의 역사적인 유대관계는 물론 정치·경제적 관계의 긴밀함을 반영한 것이다. 페루·日本 관계는 1872년 중남미에서는 최초로 양국간 우호조약이 체결된데이어 790명의 日本農民들이 페루의 사탕수수 농장에 이주해오면서 시작되어, 현재 페루에는 일본계가 8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양국간의 관계는 90년 일본계인 후지모리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더욱 공고해져, 일본은 심각한 외채문제로 국제금융계로부터 고립되었던 페루에 최초로 차관공여를 재개하는 등 각종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

다. 또한 96년 8월에는 14년만에 처음으로 하시모토 일본총리가 페루를 방문, 페루의 APEC 가입지지, 91년 7월 게릴라에 의한 일본인 농업전문가들의 피격이후 중단되었던 청년해외협력단의 파견 재개, 엔차관 연차공여국 지정, 621억엔의 차관 공여등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양국관계의 진전에 따라 96년 3월 현재 일본의 對페루 차관공여액은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번째인 10억 6,000만 달러, ODA지원액은 독일에 이어 두번째인 12억 1,000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양국간의 관계는 126일간이나 지속된 페루 게릴라집단(MRTA)의 駐페루 일본대사관 인질사태의 성공적인 종결직후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바, 사건직후 일본정부는 페루를 經濟協力 우선국으로 선정, ODA, NGO차원의 기술지원, 기술원조등을 확대함은 물론 우선적으로 국립병원 의료기자재 정비 및 발전소 개보수를 위해 14억 엔을 제공키로 한바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일본의 對페루 지원은 종전의 수력발전소, 송전선, 수도권의 전화망 건설 등 인프라건설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에 주력하기 보다는 빈곤퇴치, 유아사망률 감축 등 “人道主義的 開發戰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가입과 함께 개발원조의 증대 및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인바, 최근 일본의 對開途國 開發戰略支援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中南美室 權奇洙·鄭善祐
·李景姬·金眞梧 研究員】